

간화선 소개 (1)



2024 년 2월 29 일

북가주 수선회

Northern California Korean Zen Association

<http://koreanzen.org>



바른 참선의 필수 전제조건 (1348년)

- 1348 에 대한 반드시 바른 이해와 체험
 - 1: 연기 = 공 = 중도,
 - 3: 삼법인, 삼학(계정혜)
 - 4: 사성제 [고통-집착-멸집착-도(정혜→해탈)]
 - 8: 팔정도 (Rightly View~ Rightly Samad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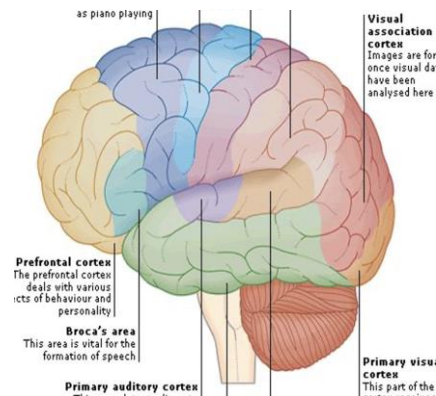
참선의 삼요

1. **바른 자세** 눈은 반개해서 정면1~2미터 앞에 놓는다, 결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하고 정인을 한다음 허리를 곧추세우고 가슴을 당긴다. 혀는 말아서 입천정 미끈한곳에 가볍게 붙입니다.
2. **바른 호흡**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는게 중요하며 단전호흡을 기본으로 배꼽아래 배가 3센치정도 볼록하게 나오고 들어가게하고 호흡간에 3초정도씩 쉰다. 자기 폐활량의80%정도 해서 폐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내쉴때 화두의 단제 (이뵈꼬?, 어째서?, 왜?)를 든다
3. **바른 마음 (3)**
 1. **신심** 신심은 진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도(道)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화두를 참구하여, 의심의 그물을 끊고, 오욕에 대한 갈애(渴愛)의 흐름을 벗어나게 하여, 해탈 할수 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서 반드시 여래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2. **분발심** 도를 닦는이는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한다. 반드시 이도를 닦아 한순간에 일대사를 이루겠다.
 3. **의심** 화두에 의심을 하지 않으면 큰병이다. 사방이 짝 막히는 큰의심을 가져야 큰깨달음을 얻는다. 수도의 요령이 계정혜(戒定慧)를 균등하게 닦는데 있으나 그 중 가장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정(禪定), 계에 의해서 욕계(欲界 惡道)를 벗어나고 정에 의해서 색계를 여의고 혜에 의해서 무색계 (삼계(三界)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유위법(세속)에서의 마음이란

- Mind (Oxford Dictionary): the element of a person that enables them to be aware of the world and their experiences, to think and to feel; the faculty of consciousness and thought; Intellect ; Attention
- 한국사전 정의: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감정의지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공간, 관심, 감정, 힘
- 마음 기원: 맞다의 명사 맞음이고 하늘과 일치하다, 하나이다라는 뜻으로 추청함. 마음이 맞다. 꿈을 꾸다. 잠을 자다 (동족목적어)



불법(무위법) 에서의 마음이란

-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상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곧 여래(如來)를 보게 되리라.
-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以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결코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의 함이 있는법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도 같은 것이니, 응당 이와 같이 관(觀)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과 법칙은 인연으로 나고 없어짐을 이룸]
- 心無無明 無老死 無罣礙 無罣礙故 無有恐怖 마음은
무명이 아니고 생사가 없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 평상심, 심즉불(부처), 직지인심(直旨人心),
불이법(不二法), 무심(無心), 깨달음



화두드는 법

선관책진

- 화두를 염해서는 안됩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을 염하는것이 이익이라도 되겠지요. 화두는 의심을 지어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의심을 지어나가는 요령에서도 또한 우선 화두 전체를 들어서 챙기고 “도대체 일체 생명에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거늘 조주는 무엇때문에 무라 일렀을까?” 그리고 나서,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왜? 이뭇꼬? 하는 식으로 의심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때도 마찬가지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 데 그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대다가 의정을 일으켜야 함,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자식 혹은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에다 두었을까하고 의심하고 의심해 나가듯이 의심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일에 대해 골몰히 의심할때 혼침과 산란한 마음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성성 적적한 경지가 저절로 옵니다.
- 화두가 안들릴때 다시 전제를 처음부터 끝구절까지 들어서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다시 의심을 지어나가되 마음이 쉽사리 안정이 안되면 한동안 거닐 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화두가 그래도 안들리면 연거푸 세번을 들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뵈꼬 화두 유래

이 뵈고' 시심마(是甚麼)는 내가 누구이며, 참나를 찾는 수행이며,
이것 (시) 는 인과를 벗어난 자리이다. 인과불낙(因果不落)의 자리이다.

남악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 육조 스님이 “시심마물임마래(是甚麼物恁麼來)”하고 물었다.

즉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 회양선사는 입이 딱 막혀 대답을 못하고,
“이 물건이 무엇인고?” 즉 ‘이 뵈고’ 화두를 갖고 8년간 고행(苦行) 끝에 확철대오 하고
다시 찾아가 “설사일물즉부중(設似一物卽不中)”이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

육조 스님이 “도리어 수증할것이 있느냐?”하고 물었다.

회양선사가 “수증즉불무(修證卽不無) 오염즉불(汚染卽不)=뉘고 증(證)하는 것이야 없지는 않습니
다만 오염(汚染)될 수는 없습니다”고 했다.

즉 일어 평등의 진리를 차별심을 갖거나, 자타(自他), 고하(高下), 시비(是非)할 것은 없습니다
고 하여 인가(認可)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이 뵈고’ 화두가 유래된 것이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흐뭇해 할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근심 걱정하고 성을 내고,

바로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도 잡히지 아니하며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듣고, 온갖
일을 하는 그 신기하고도 묘한 대관절 이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뵈꼬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것 입니다.

화두에 눈을 꼭 박아야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이냐?



간화선의 역사적 배경

-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범왕이 바친 금바라화의 꽃가지를 들어 보임에 수많은 대중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미소를 띄웠다. 이에 부처님은 「정법안장열반묘심(正法眼藏涅槃妙心)을 가섭에게 전하노라」하고 이에 승가리(가사)를 주어 신임하신 것을 **이심전심(以心傳心)**한다. 제 소견은 “염화시중의 미소가 화두의 시초”라 봅니다.
- 부처 1대 제자 **가섭**으로부터 28조 보리**달마** (28대조사400-520)에 이르기까지 법을 전하여 그 신표로서의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을 전수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보리달마가 양(梁)무제(武帝) 때에 중국에 와서 혜가(慧可)에게 법을 전하므로 제5조 **홍인(弘忍)**에 이르러 그 문하에서 **혜능**을 제6조로 하는 남종(南宗)과 신수를 제6조로 하는 북종(北宗)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북종은 오래지 않아 후손이 끊어지고 혜능의 계통만이 번성하여 드디어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선법이 들어온 것은 신라 선덕여왕 5년(784)에 당나라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서 법을 받아온 도의(道義)를 초조로 하는 가지산문(迦智山門)을 비롯하여 실상산문(實相山門)등 9산선문이 성립. 그 후 고려명종 때 불일보조**지눌**국사(1158-1210)가 나서 조계산에 수선사(修禪社)를 세우고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설립하여 조계선풍을 크게 드날렸으며 오늘날의 승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曹溪宗)도 바로 조계선풍을 계승한 종이다.
- 간화선을 집대성한분은 대혜종고선사,서장, 달마(28대조사400-520) 혜가 승찬 도신, 홍인(601-674), 혜능(638-713) 남악회양, **마조**도일(임제종) 백장 - 황벽 - **임제** - **조주**(778-897)- **대혜**종고(1089-1163), //마조(임제종의 선조, 한국선의 뿌리) 대비 동시대 조동종의 석두희천- 일본 불교의 뿌리
-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한 승려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의 순도스님, 백제 침류왕(384), 신라 눌지왕(417년)법흥왕(이차돈순교,공인527년), 보조지눌 (대혜종고선사로부터 간화선 전파, 1158-1210) 태고보우선사(간화선 확립 중흥조, 고려말 1301-1381)
- **원효**대사(617-686) 오조 홍인대사와 동대인물, **의상**대사(625-702)
- 한국 종계종 선맥 (**경허**1849-1912)-만공-전강-송담, (경허)-만공-고봉-송산, (경허)-혜월-용성-동산-성철, (경허)-혜월-운봉-향곡-진제,
- 간화선에 관한 공부꺼리: 벽암록, 서장, 임제록, 종용록, 무문관, 선요, 허당록

